

無 字 攷

孔 在 錫*

1. 序 文

本 小論을 展開시킴은 다음과 같은 點을 考察하려는 目的에서 이다.

1. 漢字에 있어서 否定詞인 無・不字等を考察하고자 하는 것 中의 하나이다.
2. 本篇에서는 無字만을 形音意 方面에서 다루려 한다.
3. 無字의 偏旁問題를 아울러 考察한다.

人類가 意思나 感情을 表示하는 方法으로,

- 1) 形態(表情)로 表示 하는 경우.
- 2) 言語로 表示하는 경우.
- 3) 文字(符號)로 表示하는 것이 있다.

象形文字는 바로 이 形態를 그리는데서 發端이 된것이라 볼 수 있다. 文字가 原始的인 面에서 象形이라는 共通性을 지니게 된것도 人類가 意思를 表現하는 手段으로 가장 容易하게 얻을 수 있는 方法이 形態로 나타 내거나 自然 그대로의 形態를 그리는데 있었던 까닭이다. 漢字도 그 象形文字의 初期段階에서는 形態를 中心한 圖繪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漢字의 最古의 文字라고 할 수 있는 甲骨文이나 金文을 본다면 비록 字體는 어느 程度 圖繪보다 進展되었으나 그 形態가 象形에 가까운 點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點을 考慮하여 人類가 그들의 意思를 表示하는데 있어서 한 事象에 관하여 肯定과 否定을 나타낼려고 할때 가장 密接하게 作用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講師 (中國文學)

될수 있는 것은 人間의 動作이나 形態에서 直接的으로 影響되었을 것이므로 無字를 이에 관련시켜 考察함과 동시에 漢字가 體系的인 變遷을 通하여 이루어진 글자인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中國文字의 最古의 字書로는 說文이 基本이 되고 있다. 여기 無字와 舞字의 解釋을 보면 다음과 같다.

無：𠄎(A)亡也 从亡無聲 无奇字無 无通於元者 王育說天屈西北爲无.

舞：舞(B)樂也 用足相背 从舛無聲 𠄎(C)古文無 从羽亡.

(上 A B C 記號로 以下 文字는 代身함)

여기서 無字와 舞字가 比較될수 있는 것은 字體의 비슷한 점과 發音이 같으며 無字나 舞字가 通用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¹⁾

無나 舞가 古代에는 서로 假借하여 썼다고 볼수 있다(原始社會의 未發達過程에 있어서는 意思를 表示하는데 수많은 글자들을 쉽게 만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假借方法을 쓰게되었다고 볼수 있다).

說文以下の 모든 字書들은 說文의 解釋에 그 基本을 두고 發展되어온 것이므로 無字도 說文의 解釋이 基本이 되고 있는 것이다. 許慎의 說文序에서는 假借의 次序를 六書中 맨 끝에 두고 있지만 假借가 最後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許慎이 例한 「假借者·本無其字·依聲託事」라고 한 것은 바로 形·音·義의 세가지 方面에서 假借할 수 있다는 뜻이다. 假借字가 본래 本字와 同意의 뜻을 갖았던 것은 아니며, 同音의 글자들을 많이 假借하여 썼으며 古代의 文字에서는 더욱 通借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2. 無字의 形態考

오늘날 漢字의 字體形態를 考察하는데 가장 오래 된 것으로 甲骨文과 金文을 舉例한다. 金文의 研究는 宋代에 그 萌芽가 되었다고 보나 效果

(1) 鐵雲藏龜120葉 3版 (甲骨文字編上 p 263) 无：無卜辭以爲舞字象人成舞之形.

上記의 變遷圖에서 殷代の 金文이나 甲骨文에 보인 形態는 하나의 象形임을 볼수 있다. 卽 처음의 圖畫文字와 比較하여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다른사람의 모양을 그린것임을 쉽게 볼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人字와는 다르게 表示되고 있다.⁽²⁾ 즉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 형상이다.

甲骨文에서 篆文까지의 變化를 살펴 보면 그 主가 人字의 正面象形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甲骨文과 金文사이의 差異는 人字의 表示 部分은 큰변화가 없으나 손에 어떤 물건을 쥐 表示가 다르고 周代에 와서 變化를 볼수 있는 字體는 方塊的인 形態로 나타 난것을 볼수 있으며 이는 整濟化된 過程임을 알수 있다.

甲骨文에서 볼수 있는 양손에 잡은 耒은 羽나 毛로 보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古代에 춤을 출때 손에 牛尾나 羽毛를 가지고 추었다고 한다.⁽³⁾ 周代의 金文을 보면 耒의 形態가 변하여 耒의 형태로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兩손에 이어진 선양이 더 加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결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人字의 形態以外에 날개를 들고 있는 것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卽 人 + 耒로 區分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人 + 耒 + 耒로도 나타 난다고 볼수 있다. 이 耒부분이 後代의 篆文에 林으로 되었다고⁽⁴⁾ 볼수 있으며 耒部分이 耒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字體上 無字와 舞字가 區別되는 것은 秦漢代의 篆文인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文字演進의 段階에 있어 無字와 舞字를 區分하여 義意를 明確히 提示하기 爲함이 었다고 볼수 있다. 여기 加筆된 形은 卽과 獵

(2) 人：人 甲骨文編下 p 410 人字의 正面象形

(3) 呂氏春秋：「葛天氏之樂・三人摻牛尾投足以歌八闋」

尙書：「舞干羽於兩階」

論語：「八佾舞於庭」

(4) 玉篇無字는 耒로 되어있다.

인 것이다. 이 加劃된 글자들을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고 볼수 있다.

亾：今亡字 說文엔 逃也从入乚

亡字를 甲骨文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𠄎 𠄏** ⁽⁵⁾ 이런 형태는 甲骨文的 無字와는 아무런 比較를 試圖할 수 없므로 字體面에서 볼때 無字와 亡字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秦篆엔 어떻게 되어 亾字를 加하여 無字를 區別 할려고 한 것일까? 이점은 一般的으로 中國文字에서 通用되어 온 假借의 方法이 作用한 것이라 볼수있다. 說文段注에 보면 亡字의 本意는 逃인데 引申되어 死라는 뜻과 無라는 뜻이 나왔다고 보았다. ⁽⁶⁾

篆文이 隸書로 變하여 字體가 크게 變하여 버렸으므로 隸書의 字體를 보고 義意를 알기란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舞字의 下部인 **舛**·이것은 後日 變하여 舛字가 되었다. 卽 用足相背한 形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춤을 출때 두다리를 뜻함으로보아 어느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⁷⁾

說文에 舞字의 풀이는 (B)樂也用足相背从舛無聲 (文撫切)(C)古文舞从羽亡이라 한바 여기 古文의 象字와 舞字와의 關係가 무엇인가 살려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羽 이것은 춤을 출때 쓰는 것을 뜻하며 亾字는 本來의 意味라고 볼 수 있는 兩足を 뜻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그러므로 (C)字는 그 字體面에서 볼때 甲骨文이나 金文에서 찾아 볼 수는 없다. ⁽⁸⁾ 그러나 意味面에서 볼때 (C)字는 舞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會意글자로 볼수 있다. 여기서 亾字가 兩足を 뜻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本來 亡字를 甲骨文에서 볼수 있듯이 이것은 **𠄎 𠄏** 등 足

(5) 鐵雲藏龜 4. 2. 10. 1

(6) 說文段注 p 640 亾字解

(7) 徐鍇通論：舛 兩足左右也

(8) 說文에서 말한 古文이나 奇字는 許慎以前의 六國文字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을 뜻하고 있으며 亡·逃也라고 한바 본래의 意味는 足의 形態를 象形하였던 것이라 볼수 있다.

篆文에서 舞字와 無字의 區別은 어느정도 字體의 區別로 義意面을 考慮하여 加劃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舞字에 있어서 舛字는 兩足を 뜻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篆文에서도 無字와 舞字의 句別을 正確하게 가려 낼수는 없다. 그러나 字體上의 完然한 區別은 漢隸에서 이다. 即 無字와 舞字의 區別이 無字는 灠이 있는 것과 舞字는 舛이 있게 된 것이다. 舞字에 있어서 舛이 있는 것은 쉽게 그 理由가 理解될 수 있으나 無字에서 下部分에 灠이 있게 된것은 쉽게 理解되기가 힘든 것이다. 이 「灠」때문에 無字의 偏旁이 火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無字의 本意와 火部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찾아 볼수 없다. 이는 다만 後世에 字書 編纂者들이 檢字의 便利性을 參照하여 無字를 火部에 넣어 버린 것이다⁽⁹⁾

(馬鳥燕魚然字들의 小篆體와 隸體를 比較하여 보면 隸體에서 一律的으로 字尾를 「灠」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2. 2 無·舞字의 古文奇字考

說文의 解釋은

無：亡也从亡無聲（武扶切）无奇字無无通於元者王育說天厠西北爲无

舞：樂也用足相背从舛無聲（文撫切）(C)古文舞从羽亡이라 하고 있다.

許慎이 說文을 作하는데 있어서 金文을 參照하였던 점은 序文中에서 찾아 볼수 있다.⁽¹⁰⁾ 여기서 古文이란 바로 金文을 指稱한 것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實際로 說文에 나타난 古文은 바로 金文이 아닌 六國文字이며, 籀文(史籀九篇殘存) 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說文을 中心한

(9) 康熙字典 火部無字

(10) 說文序：郡國往往於山川得鼎彝，其文即前代古文，皆自相似，雖回復見遠流，其詳可得略說也

그 後代의 字書들인 字林이나 玉篇의 奇字 古文은 주로 六國文字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說文에 나타난 奇字 古文 等이 時代的으로 보아 文字 演進段階에서 더욱더 甲骨文이나 金文에 가까운 形態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더욱 古代의 글자에 가까운 含縮된 字形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에 無字의 奇文인 无字의 形態를 考察 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无字와 無字

秦 나라때가 中國文字의 字體變遷의 轉換點이 되었다. 文字를 統一하여 小篆과 隸書가 나오게 되었다. 小篆의 無字는 (A), 隸書로는 𠄎로 되어 있다. 그리고 奇字로 无字가 있었다. 그러면 說文에서 無字의 說明에 「无奇字无通於元者, 王育說天屈西北爲无」라고 한 바 說文 以下の 모든 字書에서 无字를 論하였으니 모두가 그 뜻을 中心으로 說明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說明은 모두 无·元·天과 關聯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形態面에서 새로운 考察을 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元：元 臚 25·2. 𠄎 45·3. 元 3·22·5.

天：𠄎. 𠄎. 4·15·2. 𠄎 15·14.

天字와의 관계는 說文無字解說에 있어서 「王育說天屈西北爲无」라고 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无·元·天은 모두가 字體面에서 共通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共通點이란 바로 人字인 것이다. 人字의 甲骨文 形態를 中心으로 天元无字를 比較하여 보면 手寫할 수 있는 점이 많다.

天·大·人字 등은 모두가 人字의 正面立形을 그린 점에 있어서 同一한 根源에서 出發되었음을 알 수 있다.

說文 舞字解에 있어 (C)古文舞从羽 𠄎 이라고 하여 羽와 𠄎의 合字로 𠄎聲이라 하였다. 본래 舞字가 甲骨文이 나 金文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손에 깃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었으니 또 古代 춤을 출때 어떤 날개나 털을 손에 쥐고 춤을 추었다는 기록은 많이 있으니 古文에 羽字의 形態를 表示한 것은 오히려 그 意에 있어서 妥當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亼字는 두 다리를 그린 것이니 이것은 춤을 출때 두 다리를 올렸다 꾸부렸다 하여 즉 동작을 가장 잘 나타내므로 (C)는 손에 깃을 들고 두 다리를 들어 춤을 추는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甲骨文과 金文의 形態와 說文段階까지는 時期가 너무나 오랜 사이였으니 주로 小篆을 中心한 說文의 記錄이 어떤 경우엔 甲骨文이나 金文에 그 字體面에서 全然符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C)字와 亼字體에서 直接的으로 形態面에선 거의 同一한 點을 찾아 볼수는 없는 것이다. 字體보다 意面에서 共通點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羽字의 甲骨文은 羽羽 형태로, 실은 것이나 터럭을 뜻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說文에서 古文이라고 한 것이 甲骨文에 더욱가까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無字의 古文 无字도 人字를 中心한 어떤 否定的 뜻을 나타낼때의 사람의 형상에 가깝도록 그려진 것이 甲骨文과 小篆 사이의 오랜 기간 사이에 差가 생겨 否定的 뜻을 나타 내고 있는 象形的인 義意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許慎도 无는 奇字로만 解釋을 하고 形態面에서 人字를 中心한 것을 밝히지는 못하고 만 것이다.

2·3 偏旁攷

오늘날 數多한 漢字는 몇가지 偏旁(部首)에 依하여 系統的으로 整理되고 있다. 이 部首의 制定도 그 基礎가 되는 것은 說文인 것이다. 說文은 540의 部首를 定하여 9,353字를 配列하고 있다. 이 540 部首가 後世의 字林 玉篇等 모든 字書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게 하였던 것이다.

許慎이 設定한 이 部首는 어느 面에서 보면 그 當時 中國文字의 字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基本的인 象形字나 指事字를 中心하였던 것으로 當時에 參考할 수 있는 資料인 古文과 篆文을 中心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偏旁의 設定에 있어서 許慎은 많은 缺點을 내놓게 된 것도 不可避한 일인 것이다. 이는 甲骨文이나 金文의 研究가 그 當時에 없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날 金文이나 甲骨文을 中心한 새로운 資料들이 科學的인 方法으로 整理되어 說文의 540 部首도 여러가지 점에서 再檢討되며 誤謬를 校正하고 있는 것이다.

說文에 無字의 偏旁은 凵部에 屬해있다. 說文의 無字가 (A)字로 表記되고 部首는 凵인 것이다. 亡字를 甲骨文에서 보면 다음과 같으니 , , 이러한 形態는 無字의 甲骨文에서 그 形態를 찾아 볼수가 없다. 無字가 凵의 形態를 包含시키고 있는 것은 秦漢代의 篆文에서 이다. 그러므로 說文의 無字가 凵部에 屬한 理由를 다음과 같이 볼수 있는 것이다. 無字의 部首의 設定이 字體를 中心한 것이 아니고 字意面을 重視하여 設定된 것임을 알수 있다. 아울러 甲骨文에 나타난 無字와 凵字가 形體面으로 볼때 아무런 聯關이 없다. 許慎은 다만 篆文 中에서 字根을 求한 것이니 古字의 凵에서 部首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凵字의 甲骨文과 無字의 甲骨文에서 相互 共通點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글자들이 모두 人字와 關係가 있는 것이다. 凵字는 兩足を 뜻하고 있는 것이니 舞字의 古文인 (C)의 凵과 同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舞字의 古文인, (C)字와 無字의 篆文인 (A)字를 比較하여 볼때 여기서 字根을 取한 다면 凵을 잡을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A)字를 舞字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의 形態에서 사람이 춤을 출때 깃(羽)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라면 (A)字와 舞字가 通用될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舞字의 下部인 舛字는 바로 凵字와 共通點을 지니고 있으니 이것

도 兩足を 뜻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點을 考慮한다면 無字와 舞字가 篆文의 段階에서는 借用可能性이 甚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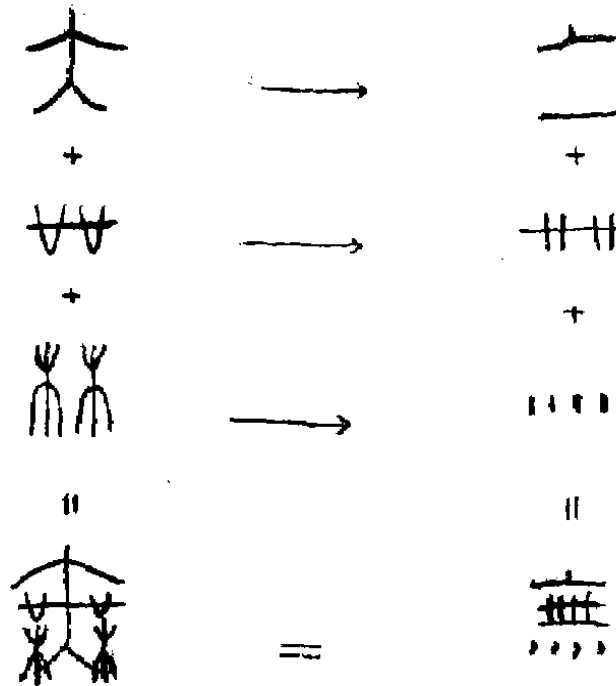
亾字와 舛字의 比較가 必要하리라 생각된다. 舞字의 舛는 說文以下 諸書가 다 兩足相背의 뜻으로 解釋하고 있다. 그래서 舞字의 偏旁이 舛部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다. 舛字가 兩足左右를 指稱하고 있으니 이것은 춤을 춘다는 動作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며 舞字의 字體變遷上 오늘날 舞字로 固定되기 까지 아무런 疑問點이 없다. 그러나 上古로부터 無字와 舞字가 借用 되어 相互 密接한 關係를 맺어오고 있었으며 그 音도 同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意味에 있어서의 差異로 無字가 字體面에서 舞字와 다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無·舞字가 다 初期 象形의 形態에선 人字의 모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秦代의 篆文에 와서야 字體上明確한 區分이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 後代의 글자들이 앞의 글자들과 아무런 關係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舞·無字에서 人字의 形態가 어떻게 變化되었을까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A)→無 여기서 人字의 形態만을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이 變하였음을 알 수 있다. 𠂇→亾→亾 여기서 篆文의 屈曲이 直線部分으로 表現되었고, 𠂇→亾→亾 形態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楷書體의 無字의 亾部分이 人字의 變形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無字는 篆文의 人字를 中心으로 發展變遷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無나 舞나 두 글자가 다 人字를 中心으로 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字典에서 俗字로 取及되는 글자들에 대하여 輕視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古字 俗字들이 古代文字에 있어 더 重要한 位置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舞字의 偏旁이 舛部에 屬하고 있음은 별 問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無字의 偏旁이 說文에 亾部에 있던 것이 後代 字典에 이르러

(火)部에 넣고 있음은, 勿論 字體의 어떤 歷史的 變遷過程과 관련이 없이 檢索의 便利 圖謀만 爲主로 하여 部首를 定立시키고 있는 것은 再考할 價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無字의 偏旁은 亡部나 아니면 人部에 넣어야 될것으로 안다. 字形의 面을 考慮한다면 人部에 넣어야 하는 것이 더욱 妥當하리라 여긴다.



上圖는 어느 面에서 論理에 不足한 點이 있을 것이나 篆文에서 隸書로 바뀌며 篆文의 複雜한 劃들을 省改하였던 것이니 理解될 만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無字의 偏旁에 關하여서도 本來는 人字를 中心으로 한 것이라 본다. 人旁에 偏入시켜야 妥當하다고 본다. 說文에는 亡部에 넣고 있는 것은 亡字의 本意가 足과 相關이 있다고 볼때 足은 人의 한 部分이며 이런 점으로 보아 人部에 넣어야 妥當하리라 생각된다.

3. 無字의 音攷

現代中國音으로 無字의 發音은 ① wu ② mē로 表記되고 있다. 아울러 亡字도 wu·wang의 두가지로 表記되고 있다.

로 부터 發展되었다고 볼수 있다.

初期圖繪의 形式에서 그 형태가 表示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考察한다면 춤을 추는 것 이외에 손의 표시가 어떤 意象을 表徵한 것으로 보며 이 表徵이 바로 否定이나 禁止를 나타 내고 있는 것이며 言語도 唇音인 (m)음을 나타 내었던 것이다. 이것은 中國의 古代의 否定이나 禁止를 나타내는 글자들의 발음이 모두가 唇音이 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人類의 感情이 強한 表象作用을 하기 위한 自然的인 現象이 아니었을까 한다.

說文段注에 의하면 亡과 無는 雙聲으로 相借한 것으로 보고 有無의 無의 뜻으로 썼다고 하였다. 雙聲疊韻譜에 보더라도 無·亾也·雙聲이라 하고 있다. 說文에서도 亡也라 하여 無字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奇字인 无字의 解를 後代字書에서 모두 虛無道라고 하여 無字의 意味가 有無의 無字로 된 것이다. 그러나 甲骨文에서도 亾字가 無字의 뜻으로 쓰여진 것은 많다.⁽¹²⁾ 여기의 亾字도 無字와 雙聲으로 無의 뜻인 것이다. 그렇다면 否定詞로서의 無字가 甲骨文에서도 亡字와 通用되었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無字의 意를 考察함에 人類가 처음으로 自己意思의 否定을 表示할때 가장 관계가 깊은 動作의 形態에서 字形을 求한 것이라 본다면 前例한 無字의 字形에서 考察한 바와 같을 것이고 이러한 段階에서 通借의 方法이 있어 依聲托事의 方法으로 通用하였다고 본다. 秦漢代의 篆文段階에 와서 無字의 形態에 亾을 加하여 字體上으로 確實한 區別을 지어 無字의 뜻을 잘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며 奇字인 无字의 解釋에 있어 天·元字와 比較하여 虛無道라고 說明하고 있는 것은 易의 思想에 依한 引申의 解釋이라 볼수 있으며 字體變遷의 系統的인 研究結果의 解釋은 아니라고 본다.

(12) 殷契萃編 1428 (癸丑貞旬亾田~亾火)

5. 結 論

以上에서 無字를 그 形態의 變遷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비록 簡單한 한 글자를 다루었지만 다음과 같은 點을 考慮한 것이다.

1. 漢字가 體系的 系統으로 發展된 글자라는 것의 한 예를 提示하였다.
2. 無字의 偏旁이 人部에 該當되어야 形意의 系統的인 考察을 加할 수 있다는 것.
3. 古代 漢字의 通借 (假借)關係가 甲骨文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의 한 예.
4. 否定詞인 無字도 唇音을 表示하고 있는 것.
5. 無字의 뜻은 象形 文字로부터 變遷 되었다는 것.